



전년도 학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엮은 족보로 실전 시험 대비가 가능한 족보

감수자: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4-03-01

2) 제작자 : (주)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북소리 증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나 보렴, 방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없이 보내셨어요?
 나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다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구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촌장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촌장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때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봐요. 여기저기 덩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시다. 그래 이곳엘 찾아온 거예요.
 나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 오래 뵈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나 촌장님두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저쪽요, 저쪽. 찢레 덩굴 밑이던가요…….
 나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구 하지 않았나?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다 도끼를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걸이 구호처럼 외쳐지구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않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뒷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

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텃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것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것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이강백, 「파수꾼」-

⑤ ㉠ : 자신의 논리에 확신을 갖는 태도를 유지하고 연기해야 합니다.

3. <보기>의 화자가 위 글의 마을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혀서 /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위를 떠나자.
 몇십 년 동안 가진 것, / 몇십 년 동안 누린 것,
 몇십 년 동안 쌓인 것, / 행복이라든가 / 뒤틀이라든가
 그런 것 다 냅마로 버리고 /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이 소리친다. / 허공 뚫고 /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과녁이 달려온다.
 이윽고 과녁이 피 뚫으며 쓰러질 때
 단 한 번 /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 돌아오지 말자!
 오, 화살, 정의의 병사여, 영령이여!

- 고은, 「화살」 -

- ① 진실을 찾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는 아픔이 따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②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 화살처럼, 박혀 썩어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강한 의지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③ 내가 가진 것, 누린 것, 쌓은 것 이런 개인적 행복이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냅마로 버리고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 ④ 허공을 뚫고 과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을 아는 순간, 현실은 캄캄한 대낮처럼 밝아질 것입니다.
- ⑤ 우리는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의 진실을 알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4. <보기>에 제시된 관점을 바탕으로 위 글에 등장하는 촌장, 파수꾼 나, 파수꾼 다의 상징적 의미를 각각 서술하시오.

<보기>

문학 감상 및 비평의 관점 중 하나인 절대주의론은 작품자체에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시간 배경이 구체화되어 사건이 역사적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
- ③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실을 우화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 ④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빈번한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동을 초점화하여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2. 연출자가 ㉠~㉢에 대해 연기 지시를 할 때, 지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진실을 알게 되어 괴로운 심정이 잘 드러나도록 표정 연기에 집중해주세요.
- ② ㉡ : 이리를 잡을 수 있다는 흥분이 드러나도록 연기해주세요.
- ③ ㉢ :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 ④ ㉠ :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도록 집중해주세요.

주목하여 그 가치를 찾으려 한다. 작품은 완성 후부터 스스로의 원리에 의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작품 내부에 그것을 이해하고 평가할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작품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는 해석 방식으로 구조론, 내재적 관점 혹은 객관적 존재론이라고도 불린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이름 있는 난초(蘭草) 두 분(盆)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래헌(茶來軒)으로 옮겨 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 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 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가 하는 비료를, 바다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구해 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 이곤 했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둣빛 꽃을 피워 나는 설레게 했고, 앞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청했었다. 우리 다래헌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을 보고 한결같이 좋아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개인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 노사(耘虛老師)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 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우었다.

아차! 이때에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執着)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청 - 승가(僧家)의 유행기(遊行期) -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엄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 듯 훌가분한 해방감.. 삼 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有情)'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훌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無所有)의 의미 같은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所有慾)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不辭)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중략>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無所有)의 역리(逆理)이니까.

-법정, 「무소유」 -

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회의적인 태도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상황만을 제시하여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대상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본받아야 할 덕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찰한 바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⑤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에게 삶의 가치를 새롭게 모색할 것을 일깨우고 있다.

6. 소유에 대한 태도가 위 글의 글쓴이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맑은 들는 대로 듣고 벗는 쥘 대로 쥘다
청품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 머무는고. - 위백규 -
- ② 해 다 저 저문 날에 지저귀는 참새들아
조고마흔 몸이 반 가지도 죽혀겨

엇더타 크나큰 덩불을 새와 무슴 흐리오. - 조명이 -
 ③ 고을사 저 꽃이여 반만 여윈 저 꽃이여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 허여 잇서
 춘풍에 향기 좃는 나뉜을 웃고 맞아 허노라. - 안민영 -
 ④ 내 마음 버혀 내여 더 달을 만들고져,
 구만 리 당턴의 번듯이 걸려 이서,
 고은 님 겨신 곳에 가 비취어나 보리라. - 정철 -
 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아라마는
 다정도 병인 냥하여 줌 못 드러 흐노라. - 이조년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津頭江)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랏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읍아가며 슬피 읍니다.

- 김소월, 「접동새」 -

(나) <앞부분 줄거리>

㉠ ‘나’는 아버지가 혼미한 중에 북쪽에 두고 온 큰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밖으로 걸돌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 그로부터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남북이 통일되고, 아버지가 이북에 두고 내려온 아들 김태섭과 남쪽의 이복동생 ‘나’는 남쪽에서 만나게 된다. 태섭은 아버지의 무덤에 같이 묻어 달라고 한 자신의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 드리고자 북쪽 어머니의 유골 상자를 들고 왔다. ㉡이러한 태섭의 방문 목적을 알고 남쪽 어머니는 크게 분노한다.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 목소리는 떨려서 나왔다. 그 대목에서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북쪽에 잔뼈가 굵은 고향에다 부모 처자식을 모두 두고 남쪽으로 흘러나온 당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끌어안고 사시던 아버지가 아니던가! 게다가 남쪽에서는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에서 공작원으로 파견된 아우와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던 핏덩이 아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같이 고향과 부모 및 본처와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어쩔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끼인 나란 존재는 무엇이였을까? 그들이 내민 달디단 캐리멜을 애들 앞에서 자랑스레 씹으며 혜정이네 골목을 신바람 나서 누비던 어린 나의 존재란 무엇이던가!

“……!”

“아버지가요……?”

“이 시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음둥?”

그는 왼손목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기때 아바이래 야속하게두 이렇게 말씀허셨지. 붓도랑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이래 북쪽을 발써 잇었다구 말이다. 저 어린것과 고생만 하는 에메를 보라면서 말이야. ㉢그러니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시며 가슴을 쥐어뜯으셨다. 태섭아 부르시며, 앞드린 내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리 이 아바이를 부디 용서하라고…… 기러시면서 차고 계시던 시계를 풀어주셨다. 후, 아바이가 생각나면 시계라도 보라고……. 그땐 그렇게 말씀허시는 아바이래 얼마나 섭했던지……. 허지만서두 나중에 지켜보니 그거이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철조망이쪽저쪽을 오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니고 통일에 일조를 하는 일도 아니겠고……. 내레도 만약 그런 처지라든 기러케 했을 거이야, 아마도.”

나는 숙인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코가 멍멍해져 왔다, <중략>

아내가 운전하는 차는 경평로를 따라 이틀 전 태섭 형님을 머셔 왔던 임진강변의 만남의 광장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차장 밖은 맑고 쾌청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다.

“형님, 이거 먼목이 없습니다. 큰어머님 모시는 문제도 잘 아귀를 지어 드리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나는 최옥분, 그분을 서슴없이 큰어머님이라고 불렀다. 뒷좌석에 나와 나란히 앉은 태섭 형님의 무릎에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흰 천에 둘러싸인 상자가 놓여 있었다.

“미안하긴 무슨거……. 사실 내레 좀 성급했다. 아, 안그래, 아우? ㉠ 이쪽저쪽 사정 좀 잘 토티아서리 순서와 조리 있게 일을 추진해야지 되는 건데 말이야. 기래두 오마니한테 아바이 계신 곳에 나들이라도 시킨 형용이니 기것도 괜찮은 거아임?”

태섭 형님은 짐짓 쾌활한 목소리를 내었다.

“제가 장담하는 건 좀 뭐하지만, 늦어도 내년 한식 이전에는 저희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일이 수월하게 풀리도록 할게요. 저희 어머니도 속이 딱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요……. 다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응어리가 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 시간이 좀 흐르면 어머니도 형님 사정을 이해하고말고요.”

- 김소진, 「목마른 뿌리」 -

7. (가)를 읽고 '시에 나타난 새'를 주제로 탐구학습을 하려고 한다. 밑줄 친 시어의 기능이 (가)의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저 청청한 하늘 /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 왜 날 울리나 / 날으는 새여 /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 ②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 낳고, 꽃을 낳는다. / 아침이면, /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 주지만 /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
- ③ 정박 중의 어두운 용골들이 / 모두 고개를 들고 / 항구의 안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 어두운 하늘에는 수삼 개의 눈송이 / 하늘의 새들이 따르고 있었다. - 황동규, 「기항지」 -
- ④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 칸에서 /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 센 내 발을 위로 하는 것이다 /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고 /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다. - 송찬호, 「구두」 -
- ⑤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 가을 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 두고 /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 그렇게 만나는 것을 - 송수권, 「산문(山門)에 기대어」 -

8. (가)의 주된 음보율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오다 가다 길에서 / 만나 이라고 / 그저 보고 그대로 / 갈 줄 아는가. - 김억, 「오다 가다」 -
- ② 물 먹는 소 목덜미에 /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 이 하루도 / 함께 지났다고, /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 서로 적막하다고. - 김종삼, 「묵화(墨畵)」 -
- ③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무 /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 신경림, 「목계장터」 -
- ④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 툭툭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 곽재구, 「사평역에서」 -
- 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너머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너머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앓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박두진, 「해」 -

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창작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옛날 진두강가에 열 남매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계모를 맞아들였다. 계모는 매우 포악하여 전처에게서 난 아이들을 학대했다. 열 남매 중 맏이인 소녀는 혼기가 되어 어느 도령과 혼약을 맺었는데, 도령의 집은 매우 부유해서 소녀의 집에 많은 예물을 보냈다. 이를 시기한 계모는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질러 죽였다. 잣더미 속에서 소녀의 죽은 혼은 접동새가 되어 날아올랐다. 접동새가 된 소녀는 계모를 무서워하여 남들이 다 자는 밤에만 나타나 아홉 동생들을 걱정하며 슬피 울었다.

- ① (가)는 <보기>의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가)는 <보기>의 설화적인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음을 3연에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가)는 반복 표현을 통한 의미 강조와 운율 형성이라는 <보기>의 특징을 이어받고 있다.
- ④ (가)는 <보기>의 줄거리를 빠짐없이 반영하기보다는 인물의 정서를 중심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가)는 <보기>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청각적 심상을 1연의 음성상징어를 통해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목마른 뿌리’는 북에 살고 있는 이복형과 남쪽에 살고 있는 동생의 해후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 나아가 남북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① ㉠은 개인적 고통과 가족사적 비극이지만, 근본 원인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비극이다.
- ② ㉡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남북 간의 갈등을 상징한다.
- ③ ㉢의 이유는 ㉠의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된다.
- ④ ㉣은 ㉡을 해결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에 나타난 인물의 갈등이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11. (가)의 화자와 (나)의 서술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누나의 한스러운 죽음은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 ② (나) : 저희 아버지도 이별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안고 돌아가셨지요.
- ③ (가) : 누나는 죽어서도 동생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 ④ (나) : 이복 형님과 저의 만남은 아버지가 생전에 이루지 못하셨던 가족의 결함을 이뤄냈습니다.
- ⑤ (가) : 죽은 누나의 환생인 접동새를 보는 것으로 저는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12. <보기>는 (나)의 결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형님! 우린 누가 뭐래도 한 뿌리입니다!”
 “기거를 새삼 말하든 무얼 하겠음? 타고난 핏줄인 것을……. 서로에게 가 닿지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달프고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음등? 이제는 그런 일 없어야 함동!”
 “에, 형님!”
 그는 더 이상 배웅하지 말라며 만남의 광장에서 내려 앞장서 걸어갔다. 그가 한번 뒤돌아보았다. 나는 입에 손나발을 해 붙

이고 소리쳤다.
 “형님! 이번엔 제가 태형이 방학하면 데리고 찾아가볼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서 차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해 보였다, 그가 올 때처럼 갈 때도 역시 햇살이 그의 등 뒤를 따사롭게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꼼작 않고 서 있었다. 메마른 먼지바람이 나는 오랫동안 감싸 입술이 버섯버섯 말랐지만 난 갈증을 느낄 수 없었다. 단비를 잔뜩 머금은 나무의 뿌리처럼 내 몸 안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축축함이 샘솟듯 힘차게 차오르는 느낌 때문이었다.

- (1) (나)의 제목 ‘목마른 뿌리’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십시오.
- (2) ‘목마른 뿌리’와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상징적 소재를 찾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 뿔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리라 우리라 ㉢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분다 물 아래 가던 새 분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분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 바므란 쏘 엇디 흐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बार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奚琴(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론 도끼 ㉠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과 잡스와니, 내 었디 ㅎ리이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가 미상, 「청산별곡」 -

(나)

<앞부분 줄거리>

㉠ ‘나’(연암)는 봉원사에서 선인(仙人)의 도를 익히고 있는 윤희이라는 노인을 알게 된다. 그 노인은 허생을 비롯한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며칠 밤에 걸쳐 들려주곤 했다. 17년이 지난 어느 봄날, ‘나’는 비류강에서 우연히 그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된다. 떠날 무렵 노인은 “허생의 아내 말씀이오, 참 가엾더군. 그러고도 그 여자는 여전히 굶주렸던 거요.”하고 말한다. 이에 ‘나’는 기록한다.

<전략>

오랜만에 그의 벗이 찾아와 술상을 마련해야 했던 날이었다. 술상을 들여가다 본의 아니게 대화를 엿들었다.

“무슨 책을 읽는데 그렇게 꼼짝도 않고 틀어박혀 지냈나?”

“㉡ 공자님도 책을 맨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지도록 읽으셨다는 책.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꼭 절반일세.”

“주역을 십 년 읽는다……. 귀신이라도 셈이군.”

“싫네. 난 단지 꿰뚫어 싶을 뿐이야. 이 세상, 이 우주를 두고 일언이폐지 왈(一言以蔽之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네.”

“과거는 어찌하구?”

“나더러 진흙탕에 스스로 몸을 던지란 말인가?”

“싫으면 바로잡으면 되잖나? 젊은 사람이 그만한 패기와 경륜도 없나? 그냥 썩기엔 자네 재주가 너무 아깝지 않은가?”

“패기가 없어서가 아닐세. 무작정 달려들기엔 세상은 내

게 너무 투명해.”

“스스로 모순됨을 느끼지 아니하나? 전에 자넨 늘 용(用)을 말했지. 실(實)의 바탕은 용에 있노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자넨 한없이 격물치지(格物致知)만 할 생각이라고 하는군.”

“아냐, 난 변했어. 몇 년 전일까…… 소현세자께서 청나라에서 돌아와 두 달도 못 되어 급서한 적이 있지? 그때 그 죽음을 놓고 세상이 시끄러웠지. 난 그로부터 세상 물정을 가늠하기 시작하였네. 생각해 보게. 내 문벌이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뻔하지. 혹 출세할 수 있어 내 뜻을 펴려고 한다고 가정하세. 이처럼 얽혀 드는 조정에서 그제 용납될까? ㉢창량의 물이 더러우면 밭을 씻어야지, 갓끈을 씻으면 안 되네.”

<중략>

“당신은 밤낮없이 글을 읽는데,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남편은 여전히 책에 시선을 둔 채 가볍게 대꾸했다.

“공부가 미숙한 때문이오.”

“그럼 장사라도 하여 먹고살아야지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데 어찌 하겠소.”

“그럼 공장이 일이라도 하시지요.”

“공장은 기술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당신은 주야로 독서하더니 배운 것이 고작 어찌하겠소 타령입니까? 사람은 생명이 있는 다음에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인데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도리를 차리셔야 합니다.”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칠 년밖에 되지 않았거늘 나더러 뭘 하라는 거요?”

“대체 무엇을 위해 독서하십니까?”

남편은 대답이 궁해지자 책을 탁 덮고 일어나 탄소리를 했다.

“애석하구나, 겨우 칠 년이라니.”

그리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중략>

“잠시만 앉으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소.”

남편은 말 꺼내기가 어려운 듯 잠시 묵묵해 있었다.

“나는 다시 출유하려 하오.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고 수레벌 큰택에 몸을 의탁해 있으시오. 이미 사촌 큰형님과 상의해 두었소.”

“집을 판다면…… 아주 안 돌아오십니까?”

“나도 모르오. 내 뜻이 이곳에 없으니 장담하기 어렵소.”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하시지요.”

“무슨 해괴망측한 소릴 하오? 우린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어찌 쉽게 깨뜨린단 말이오? 사람에게겐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니 하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㉔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이 여자 홀로 지켜야 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걸 저버리고 절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 다.”

“사대부집 아녀자가 어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오. 당신이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리라곤 생각지 않소.”

“인륜? 예의? 염치? 그게 무엇이지요? 하루 종일 무릎이 시도록 웅크리고 앉아 바느질하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 야 무슨 짓을 하든 서숙이라도 꾸어다 조석 봉양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 술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라는 말입니까?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를 아는 겁니까? 아무리 굶주려도 낱 소리도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인륜이라는 거지요? ㉔ 난 터무니 없는 짓 않 겠 습 니다.”

- 이남희, 「허생의 처」 -

13. (가)의 화자와 (나)의 주인공(허생의 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와 (나)의 주인공은 모두 당시의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인물이다.
- ② (가)의 화자와 (나)의 주인공은 모두 과거를 후회하며 주체적인 삶을 다짐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와 (나)의 주인공은 모두 현재의 슬픔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 ④ (가)의 화자는 과거의 삶에 미련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⑤ (나)의 주인공의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신분 사회의 계층간 갈등이 첨예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드러낸다.

14. 밑줄 친 시어 중 (가)의 ㉔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청산은 내 뜻이오 녹수는 님이 정이, /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홀손가. / 녹수도 청산을 못 니져 우리에어 가논고
 - 황진이 -

②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 나옹선사 -

③ 나는 수풀 우거진 청산에 살으리라. /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에 살으리라. / 이 봄도 산허리엔 초록빛 물들었네. / 세상 변되 시름 잊고 청산에서 살리라.
 - 김연준, 「청산에 살리라」 -

④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 여름 산 같은 /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란을 기르듯 /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 서정주, 「무등을 보며」 -

⑤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 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 박두진, 「청산도」 -

15. (가)의 ㉔~㉔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청산에서의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며 대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 ② ㉔ : 시적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③ ㉔ : 절망적인 고독의 상태를 의미한다.
- ④ ㉔ : 화자에게 알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존재로 인간의 운명적 비극을 의미하기도 한다.
- ⑤ ㉔ : 화자가 현실의 고뇌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상이다.

16. (가)의 후렴구의 효과에 대해 다음 <보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보기>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자음(㉔)음과 (㉔)음을 활용하여 (㉔)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17.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허생에 대해 잘 아는 비범한 노인을 설정하여 이 작품이 허생전의 패러디임을 암시하고 이야기에 신뢰감을 준다.
- ② ㉡ : <주역>을 의미하며, 학문 수양하는 군자의 이상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③ ㉢ : 당시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며 학문을 통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말하고 있다.
- ④ ㉣ : 혼인에 대한 신의는 아내뿐 아니라 남편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페미니즘 소설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 더 이상은 남편이 주장하는 유교적 가치대로 살지 않겠다는 아내의 다짐을 의미한다.

18. (나)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상황1 : 나는 허생을 찾아온 허생의 벗과 허생의 대화를 엿듣는다.

상황2 : 나와 허생이 대화하는 도중 허생은 가출한다.

상황3 : 허생이 귀가하여 나와 허생이 대화한다.

- ① '상황1'의 벗은 허생의 능력을 아깝게 여겨 벼슬길에 나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② '상황1'은 내가 허생에게 실망하는 계기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상황2'의 대화가 이루어 진다.
- ③ '상황2'에서 나는 과거를 응시하지 않는 허생을 비난하고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요구함으로써 갈등을 빚는다.
- ④ '상황3'에서 나는 끝까지 논리적인 입장을 유지하지만 허생은 갈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⑤ '상황3'에서 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허생은 유교적 원칙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스물여섯 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과 아내를 구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대해 신체적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내외에게 모

종의 부러움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 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중략>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답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결눈질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결눈질한 남자의 꼴을, 결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알은체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체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여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그옥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일 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일찍이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려 나온 벗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 어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열다섯 살짜리 문학 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자주 벗을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戀愛詩)를 초(草)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기보다 세 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자기가 한 여자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여도 결코 서투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더 나이 먹은 이의 사랑을 용납해 버릴 게다.

그러나 구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전에, 여자는 참말,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갔다. 열일곱 살 먹은 구보는, 자기의 마음이 꺾이나 괴롭고 슬픈 것같이 생각하려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특히 남자의 행복을 빌려 들었다. 그러한 감정은 그가 읽은 문학서류에 얼마든지 쓰여 있었다. 결혼 비용 삼천 원. 신혼여행은 동경으로. 관수동에 그들 부처를 위하여 개축된 집은 행복을 보장하는 듯 싶었다.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벗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알 수 있었다. 구보가 일곱 살 먹은 사내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 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중 나이 어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젠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려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뒷부분 줄거리>

이후 구보는 이 곳 저 곳을 다니다가 밤에 집으로 돌아간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1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루 동안의 원점 회귀적 여로 형식으로 여행의 길을 따라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 ② 서술자의 마음 속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세태를 묘사하였다.
- ③ 사건과 사건이 연관성을 이어가며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과거 회상이나 의식의 추이에 대한 서술이 강화되었다.
- ④ 차분하게 정돈된 생각의 전개과정을 짧고 간결한 문장과 쉼표를 사용해 나타냄으로써 주인공 내면 의식의 흔들림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⑤ 각각의 장면을 적절하게 이어 붙여서 하나의 내용으로 만드는 몽타주와 한 장면에 다음 장면이 겹치면서 전환되는 오버랩 등의 모더니즘 기법을 응용하였다.

20. ㉠에 담긴 인물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 ① 여자에게 마음을 태우는 제 모습이 괴이하고 우습다.
- ② 여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다.
- ③ 여자가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다고 확신한다.
- ④ 아는 체를 해야 옳은지 모른 체를 해야 옳은지 잘 모르고 있다.
- ⑤ 여자와 만났을 때, 자기의 대담한 태도와 화술이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21. ㉡과 같이 구보가 생각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꿈꿔 왔던 여인의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 ② 얼굴을 붉힐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 ③ 여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여인과 결혼하는 남자의 행복을 빌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 ⑤ 여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2. 위 글의 주인공 구보를 A로, <보기>의 화자를 B로

설정하고 대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태산이 높다 헉되 하늘 아래 뉘히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뉘흘 높다 헉더라

- 양사언 -

- ① A : 저는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하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 ② B : 이상과 목표가 있다면 쉬지 않고 정진해야 하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 ③ A : 하지만 지금 이 현실이 저를 무기력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걸을 뿐입니다.
- ④ B : 노력하지 않고 체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실천적 자세로 구보씨의 삶과 세상을 바꿔보세요.
- ⑤ A : 저는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에 몸을 맡겨 이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받아낼 것입니다.

23. <보기>는 위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보기>

위 글의 시점은 (㉠)인칭 (㉡)시점이다. 그런데 독자는 위 글을 읽으면서 (㉢)인칭 시점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유는 서술자가 (㉣) 때문이다.

정답



- 1) ③
- 2) ③
- 3) ④
- 4) 촌장: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공포심을 조작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위선자 파수꾼 나: 촌장의 지배논리를 합리화하는 하수인 파수꾼 다: 진실을 밝히려는 양심적 인물이나 결국 촌장의 회유에 굴복하는 나약한 인물
- 5) ⑤
- 6) ②
- 7) ⑤
- 8) ①
- 9) ③
- 10) ③
- 11) ④
- 12) 1) 남과 북에서 따로 살아온 이복형제가 혈연의 정을 그리워하며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 2) 단비를 잔뜩 머금은 나무의 뿌리
- 13) ③
- 14) ③
- 15) ⑤
- 16) ㉠ ㉡ ㉢ ㉣ ㉤ 낙천적이고 명랑한
- 17) ③
- 18) ④
- 19) ④
- 20) ②
- 21) ①
- 22) ⑤
- 23) ㉠ 3인칭 ㉡ 전지적 ㉢ 1인칭 ㉣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을 전개하고 있기